

‘14주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여성계 “전면 폐지가 마땅”

정부, 7일 입법예고...사유따라 24주까지 가능

여성단체 “현재 결정 후퇴...자기결정권 침해”

“14주 제한도 모호” 지적도...청원 3만명 서명

임신 14주 내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 자체는 존속하는 취지의 법안이 입법에 고된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성취회 등 여성계에서는 이번 행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성 인권을 사실상 후퇴시키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경우든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나 건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현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

다.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게 됐지만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난희 한국여성성취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입법예고안”이라며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구계획이나 저출산, 의료계 관점을 반영해 낙태죄를 존속했다”고 분석했다.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당연히 전면 폐지로 가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 법

이 어떤 인식에 근거했는지가 가장 문제”라며 “마치 밥을 주지 않으면 여성들이 낙태를 남용할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삶과 미래,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숙고해서 내리는 여성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낙태는 여성이 합리적 판단 아래 결정할 사안이므로 형사처벌은 명백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사회적 조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14주 내라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모든 여성들이 14주 이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전히 낳고 싶지 않은데도 낳아야만 하거나 낙태를 하다가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월경 주기가 다르고 태아들도 신체 조건이 같지 않아 명확히 주수를 구별하기는 힘들다”며 “처벌 조항이라는 건 명확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릴레이 선언 등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의당은 ‘500인의 여성이 말하는 낙태죄 폐지’ 보이캠페인을 연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녹음파

일을 시민들로부터 모집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여성성취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성추행 피해 호소 뒤 숨진 중학생 괴롭힌 또래 3명 소년부 송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 3일만에 숨져

또래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을 소년 재판부로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6일 동급생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의제강제추행치상 등)로 A군 등 3명을 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8일부터 19일까지 전남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B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 입원 3일 만인 지난 7월3일 숨졌다.

경찰은 A군 등이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부모를 모욕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군 등은 B군과 장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 재판부에 송치했다”며 “재판을 통해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보호 관찰 처분, 특별교육이 내려진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지난 7월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10여일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조사를



또래들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신고한 뒤 병원 치료 중 숨진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벌였으며 해당 학교 교장을 징직 처분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전학 조치했다.

정승호기자

KBS 곡괭이 난동 40대 “도청하는 걸로 오해”

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 난입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 출석해 “깊이 반성한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해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A(4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본인 휴대전화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는 방송국으로 찾아갔다”면서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뮤직쇼를 중단하게 하고, KBS 소유 시가 3400여만원의 유리창을 손괴해 라디오 방송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

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유리창이 깨진 부분이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3시40분경 생방송이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깨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 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명 사상 광주 빌라 불...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

경찰·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

일가족 4명이 사상한 광주 동구 계림동 빌라 화재는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공사와 동구 계림동 빌라 3층의 한 세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

식을 한 뒤 “가전제품 주변 그늘림이 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거실 바닥 텔레비전 앞 케이블 쪽이 집중적으로 타고 그늘린 점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